

정숙성·승차감 선사... 스포츠카, '한국타이어' 달고 질주

포르쉐·벤츠·BMW 등 파트너 활동 전기차 전용 타이어 기술력도 집중 테슬라 '모델 3'·'모델 Y'에도 공급 스포츠대회 통해 타이어 테스트 진행 람보르기니, 레이싱서 '벤투스' 장착



한국타이어 타이어를 장착한 포르쉐 718 박스터 차량.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들은 최고 성능의 타이어를 출시하기 위해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끊임없이 실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혹독한 준비과정을 통해 타이어를 개발한다. 타이어 기업에게는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테스트 노하우와 데이터가 곧 기술력이며, 브랜드의 근간이 된다.

타이어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각종 테스트 횡수와 범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고성능 차량에 공급되는 고성능 타이어의 경우 개발 과정은 더욱 험난하다.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같은 고성능 슈퍼카에 타이어가 장착되기 위해선 동일한 수준의 또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타이어를 장착하여 실제로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 실제 고성능 차량에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완벽한 초고성능 타이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타이어 기업 중에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지속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타이어 테

스트 등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고성능 차량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포르쉐부터 벤츠, BMW, 아우디, 테슬라, 람보르기니까지 주요 완성차 브랜드 대표 고성능 차량 모델과 신차용 타이어 공급 및 모터스포츠 파트너로 활동한다.

고성능 차량의 하이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타이어가 강력한 파워트레인이 발휘하는 힘을 그대로 노면에 전달하면서도 정숙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최상의 접지력과

내구성, 저소음 타이어 기술력을 통해 모든 운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원천기술 개발과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5년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의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실제 준비 기간은 훨씬 이전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르쉐에 공급하기 위해 동등 이상 조건의 차량들로 지속적인 실차 테스트를 진행하며, 결국 엄격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

이를 통해 현재 4도어 스포츠 세단 4도어 스포츠 세단 '파나메라', 고성능 스포츠 로드스터 '718 박스터', 크로스



한국타이어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시리즈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

오버 SUV 모델 '마칸', 슈퍼 프리미엄 SUV '카이엔'에 공급 중이다. 특히 2021년에는 포르쉐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카 '다이칸'에 전기차 전용 고성능 타이어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이처럼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들은 아우디의 고성능 브랜드 'RS(Renn Sport)' 라인업과 BMW의 고성능 브랜드 'M'까지 신차용 타이어 공급 파트너십 영역을 넓히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아우디의 'RS Q8'과 초고성능 쿠페형 세단 'RS7 스포트백', 슈퍼 왜건 'RS6 아반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BMW의 'X3

M'과 'X4M', 레이싱카 'M4GT4'와도 함께 한다.

완성차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전기차 시장에도 적용됐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가 상용화 되기 전부터 한 발 앞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 기술력에 집중했다. 그 결과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포르쉐 '다이칸', 현대차 '아이오닉 6', 그리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토요타 등의 전기차량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중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타이어 순위 5위내 업체들에서만 주로 진행됐던, 하이엔드급 슈퍼카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고급 사양의 슈퍼카 실차 테스트, 슈퍼카 브랜드가 진행하는 모터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타이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부터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주관 레이싱 대회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시리즈에 레이싱 타이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3 시즌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람보르기니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 에보2' 차량은 한국타이어 '벤투스' 레이싱 타이어를 장착하고 초고속 질주를 펼치고 있다.

/양성은 기자 ysw@metroseoul.co.kr

SK케미칼, 친환경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

코맥스산업과 협업해 개발 유리의 투명함과 깨지지 않는 장점 생산과정 배출 이산화탄소 낮아



SK케미칼 에코젠 소재로 제작된 밀폐용기. /SK케미칼

SK케미칼이 코맥스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재로 환경까지 생각하는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 (ECO CLEAR)'를 개발했다.

SK케미칼과 코맥스산업은 SK케미칼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에코젠(ECOZEN)'의 기능을 강화한 신소재 '에코젠 프로(ECOZEN Pro)'로 제작된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는 SK케미칼의 에코젠 소

재로 만든 투명(CLEAR)한 용기란 의미로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제품명에 담았다. 유리의 투명함과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의 장점을 결합한 '에코 클리어'는 실리콘 패키징을 제외한 몸체, 뚜껑, 손잡이까지 모든 부분이 '에코젠'으로 만들어져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용기 내부의 내용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에코 클리어'에 사용된 '에코젠 프로'는 기존 소재 보다 내충격성 등이 업그레이드된 소재다.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고 있는 비스페놀A(BPA)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성분 검출 우려가 없고 내열도, 내오염성, 내화학성이 우수해 산도가 높은 김치, 향신료나 기름진 식자재를 오래 보관해도 냄새 배임이나 변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식기세척기 같은 사용환경에서도 변형 없는 밀폐용기 제작이 가능하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타 플라스틱 대비 약 1/3 수준의 낮은 탄소 배출 효과로, '에코 클리어' 3.3kg 사용 시, 나무 2/3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코오롱인더, 전기차 타이어 시장 공략

PMR 생산시설 1만톤 규모 증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전기차 시대를 겨냥해 타이어 원료 역량을 확대한다.

코오롱인더는 전남 여수공장 고순도 방향족계 석유수지(PMR) 생산시설 1만톤 규모를 증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1.1만톤에서 2.1만톤으로 생산 능력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이다.

PMR은 열 안정성과 점-점착성을 높인 석유수지로 ▲고성능타이어 ▲전기 케이블 ▲위생재 등에 특수 첨가제로 쓰인다. 특히 고무 타이어의 내구성을 강화해 배터리 탑재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30% 더 무거운 전기차의 노면

제동력과 주행 안전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경쟁사 대비 원료 수급 안정성과 원가경쟁력 우위까지 확보하면서 스페셜티 석유수지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석유수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준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업5본부장은 "고급 차량 중심의 고성능 타이어 시장이 전기차로 확대되면서 고객사 주문에 적기에 대응하고자 발빠르게 생산능력 증강에 나서는데"이라며 "국내 1위 석유수지 업체로서 스페셜티 사업을 본격 확장해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수익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삼성, 무풍 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선포

ASA소재·엣지 라이팅 적용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도 최고 럭셔리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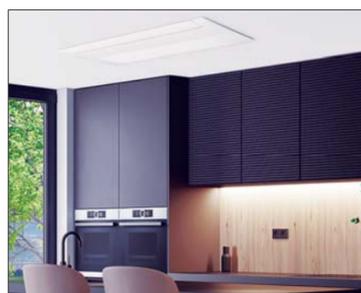
삼성전자는 31일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 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제품군이다. 지난해 냉장고와 오븐 등 키친패키

지를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무풍 시스템에어컨으로도 새로 확대했다.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 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변형이나 변색이 적은 'ASA' 소재에 분위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는 엣지 라이팅을 적용했다. 밝기는 조도 센서가 조절한다.

일반 동작보다 최대 61% 소비전력을 아껴준다. 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효율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 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출시한다.

1등급,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소비전력을 최대 20%까지 절감해준다. /김재웅 기자 juk@

삼성디스플레이, 2년 연속 무분류 타결

임금·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다시 손을 잡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아산1캠퍼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윤성희 People팀장(부사장)과 유하람 열린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해 15차례 교섭을 거쳐 지난달 27일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화를 통한 무분류 타결이다.

윤성희 삼성디스플레이 People팀장(부사장)은 "소통과 신뢰로 무분류 합의를 이뤄낸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회사는 앞으로도 노사 관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